

# 최고의 창과 방패... 진짜 승부가 시작된다

크로아티아 - 브라질  
 네덜란드 - 아르헨티나  
 모로코 - 포르투갈  
 잉글랜드 - 프랑스  
 세기의 대결 명승부 예고

월드컵을 향해가는 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오는 10일부터는 본격적인 8강전이 시작된다. 어느 팀이 8강 문턱을 넘어설지 전세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강전 서막은 크로아티아-브라질(10일 0시에 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이 열고 이어 네덜란드-아르헨티나(10일 오전 4시 루사일 스타디움)가 격돌한다.

절체 절명의 승부에서 각팀 선수들의 결기를 바짝 세우고 있다.

세계 최고의 골잡이인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를 막아야 하는 잉글랜드 오른쪽 풀백 카일 워커(맨체스터 시티)는 결연하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4강, 지난해 열린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에서 준우승을 일군 잉글랜드는, 이번에야말로 56년 만의 메이저 대회 우승을 이룰 기회라고 보고 있다.



프랑스 킬리안 음바페



잉글랜드 카일 워커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



네덜란드 안드리스 노퍼르트

충돌한다.

워커 역시 최고의 풀백을 짤 때 늘 첫손에 꼽히는 선수다.

엄청난 활동량과 스피드를 감점 삼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389경기를 소화했다. 대표팀 같은 중거리 슛을 겸비한 워커는 EPL 통산 8골을 기록 중이다.

워커는 프랑스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음바페를 공격수로서 존경하지만, 경기 날에는 너무 많이 존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프랑스전은 힘든 경기가 되겠지만, 어떤 팀이든 한 명의 선수만

으로 플레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음바페한테 골 넣으라고 레드카드를 깔아 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이 무대는 월드컵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르헨티나와 2022 카타르 월드컵 8강에서 격돌하는 네덜란드의 골키퍼 안드리스 노퍼르트(헤이렌베인)는 상대 팀의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도 '사람'이라며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AP,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노퍼르트는 아르헨티나와의 8강전을 앞두고 7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대표팀 훈련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메시도 우리와 똑같다. 그도 인간이다"라고 말했다.

메시의 아르헨티나와 맞설 네덜란드의 골문을 지킬 노퍼르트는 이번 대회 직전인 9월 처음으로 A 대표팀에 발탁돼 월드컵 최종 엔트리까지 전격 승선한 선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2부 팀에서조차 자리 잡지 못해 선수 은퇴를 고려할 정도로 무명이었다던 그는 지난해 입단한 네덜란드 고어헤드 이글스에서 올해 들어 출전 기회를 잡아가고, 이번 시즌 헤이렌베인에서도 활약을 이어가며 국가대표까지 뒀

다.

노퍼르트는 "내 경력을 보면 월드컵에 가는 꿈을 버려야 했겠지만, 난 그걸 위해 계속 싸웠다. 루이 판할(대표팀) 감독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며 "여기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계속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메시에 대해서 "그 역시 실수할 수 있다. 조 벨리그를 초반에 우리는 그걸 봤다"며 "그가 좋은 선수인 건 분명하지만, 페널티킥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의지를 불태웠다.

/연합뉴스

## 골키퍼 선방에 페널티킥 성공률 58%로 푹 ↓

31차례 페널티킥 18번 성공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70.6%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페널티킥 성공률(승부차기 포함)이 5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기 도중 발생한 페널티킥이 16개 나왔고, 승부차기는 15차례 시도가 이뤄졌다. 총 31차례의 페널티킥에서 골로 연결된 것은 18번으로 성공률은 58.1%다. 이는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의 70.6%에 비해 12.5% 정도 떨어진 수치다.

2018년 대회에서는 경기 도중 나온 페널티킥 29회, 승부차기 39회로 총 68회의 페널티킥 시도가 있었고 이 가운데 48차례 골로 연결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0년 4월 발표한 1983년 프로축구 출범 후 페널티킥 성공률은 79.2%로 집계된 바 있다.

2010-2011시즌부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도 1천397차례 페널티킥 가운데 1천94번이 골로 연결돼 성공률은 78%에 달했다.

월드컵은 단일 대회인데다 키커의 부담이 평소 리그 경기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번 대회 58% 성공률은 눈에 띄게 낮은 수치인 셈이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폴란드),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등 세계적인 공격수들도 이번 대회 페널티킥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무적함대'로 불린 스페인은 페널티킥 연습을 1000 번씩 했지만 정작 모로코와 16강전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승부차기 0-3으로 패했다.

키커의 실축이 아닌 골키퍼가 선방할 확률도 이번 대회 크게 늘었다.



이번 대회 골키퍼가 상대 팀의 페널티킥을 막아낸 것은 35.5%에 해당하는 11번이다.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1966년부터 2018년 대회까지 페널티킥을 골키퍼가 막아낸 확률이 17%였다는 것이다. 이번 대회 골키퍼 선방 확률이 2배 이상 늘었다.

/연합뉴스

## 조규성, '몸값 치솟은 스타 11명' 선정

영국 축구 전문 '풋볼365'

광주대 출신 조규성(전북·사진)의 몸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해외 매체의 전망이 나왔다.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 '풋볼365'는 8일(한국시간)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몸값이 치솟은 스타 11명을 선정했다.

풋볼365는 '4-3-3' 전형에 맞춘 베스트 11 형태로 선수를 추리면서 조규성을 최전방 공격수로 뽑았다.

매체는 "조규성이 3분 동안 넣은 2골은 한국에 승리를 가져다주지 못했지만, 조규성의 인생은 바



있다"면서 "이적료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지난날 기준 조규성의 추정 이적료는

140만 유로(약 19억 4000만원)이지만, 이제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규성의 유럽행을 점치는 현지 보도도 나온다. 튀르키예(터키) 매체 타크빔은 터키 클럽 페네르바체와 프랑스 스타드 렌이 조규성 영입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3골을 넣으며 네덜란드를 8강에 올려놓은 코디 하포(에인트호번)와 일본의 16강 진출에 앞장선 도안 리스(프라이부르크)가 조규성과 함께 풋볼 365 베스트 11의 공격진에 선정됐다.

미드필더로는 주드 벨링엄(잉글랜드·도르트문트), 수프얀 암라바트(모로코·베로나), 타일라 에덤스(미국·리츠)가 뽑혔다. 스페인과 16강전 승부차기에서 빛나는 선방을 펼친 모로코 골키퍼 야신 부누(세비야) 역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 "집에 강도 들었다" 잉글랜드로 간 스티어링 프랑스로전 앞두고 복귀...출전 여부 불투명



잉글랜드 라힘 스티어링

집에 무장 강도가 들어 급히 귀국한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의 공격수 라힘 스티어링(28·첼시)이 돌아오더라도 프랑스와 2022 카타르 월드컵 8강전 출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스티어링이 전날 밤까지도 영국에 머무르고 있다며 프랑스와 일전에 나설 가능성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스티어링 측에서 잉글랜드축구협회(FA)에 카타르로 돌아가기 위한 비행편 등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라며 "9일 오후까지 대표팀 캠프에 스티어링이 합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럴 경우 8일 예정된 훈련에 불참하게 되며 다음 날 훈련까지 놓칠 가능성이 있어 곧장 프랑스와 경기에 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잉글랜드와 프랑스와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4시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맞붙는다.

데일리메일 역시 스티어링이 예상보다 빨리 복귀하더라도 8일 오후 훈련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앞으로 다가온 결전에 대비한 훈련에 빠졌다면 실제 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쳤다.

스티어링은 세네갈과 16강전이 펼쳐지기 전 '가족 문제'로 급히 귀국했다.

영국 BBC 방송 등 현지 매체들은 자택에 무장 강도가 침입하자 10세 장녀 밑으로 5세와 3세 아들이 있는 스티어링이 가족을 걱정해 대표팀에 허락

을 구하고 이탈했다고 전했다.

개러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감독은 경기 후 "때로는 축구보다 가족이 먼저일 때가 있다"며 "우리는 스티어링에게 여유를 주고 싶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며칠간 지켜볼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런데 현지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이런 설명과 배치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영국 서리주 경찰은 성명을 통해 무장 강도가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당시 스티어링의 가족들도 자택에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도난 품목으로 신고됐던 시계와 보석들도 다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7일 인근 지역에서 절도 혐의를 받는 괴한 두 명이 체포되며 이목이 집중됐지만 경찰은 이들이 스티어링의 자택 침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월드컵 8강전**

10일(토) ※한국시간 기준

	크로아티아 vs 브라질	
00:00		
	네덜란드 vs 아르헨티나	
04:00		

자료: FIFA